

# 180만달러 방글라데시 철도 사업 수주

- 인도, 네팔 이어 방글라데시 철도시장 진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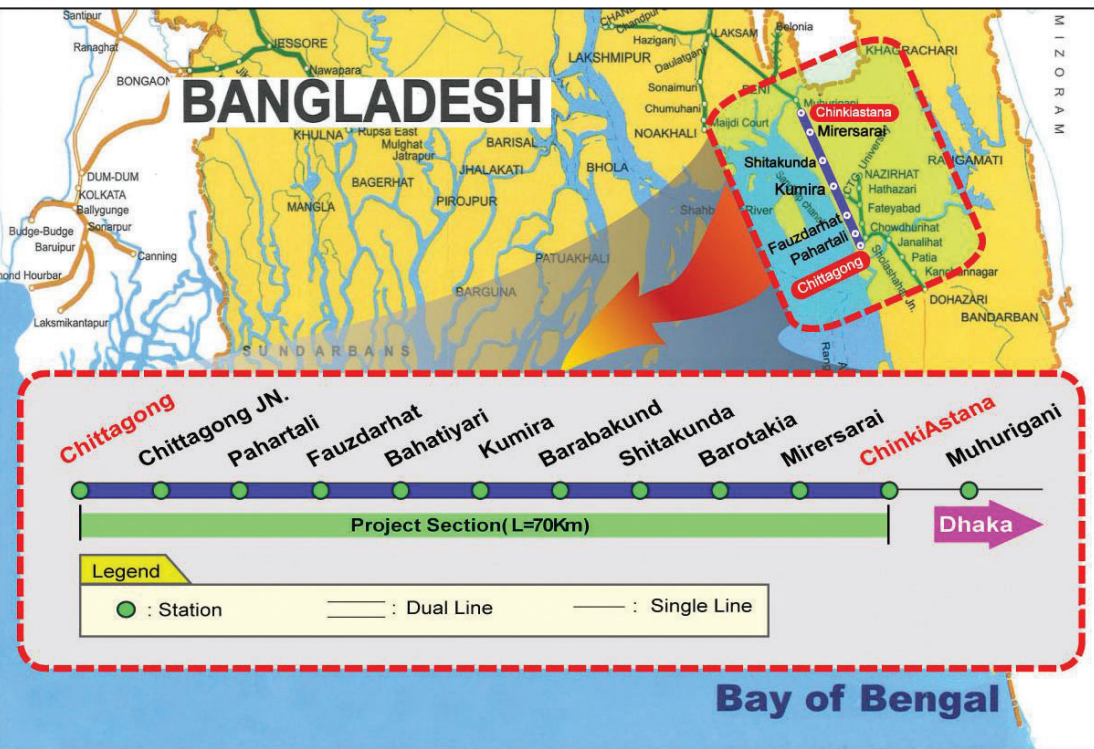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6월 12일 방글라데시 철도청(BR)이 발주한 180만달러 규모의 동부지역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사업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동부지역의 주요 철도노선축인 친키아스타나(Chinki Astana)~치타공(Chittagong) 구간의 수송량 증대를 위한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의 기본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본부는 그동안 네팔 전기철도 실시설계 및 인도 고속철도 설계자문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한 철도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은 높은 인구수 및 건설한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도시설이 열악하여 철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획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방글라데시 동부 11개역 신호현대화 사업 노선현황



한편, 김광재 이사장은 6월 13일 부산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참가를 위해 방한한 암자드 호사인(Amzad Hossain) 방글라데시 철도청 건설담당 부청장 일행을 만나 파하틀리 차량기지 개량사업(13년 하반기 발주예정, 6천만 달러 규모) 및 다카 메트로 건설사업(14년 발주예정, 22억달러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방글라데시 철도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공급자 현대로템 컨소시엄 선정

- 차량, 신호, 검수설비 일괄 구매·설치에 2038억원 공급키로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2018년 11월 개통예정인 김포도시철도의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공급자로 현대로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의 공급금액은 2038억원(설계가 대비 92.5%)으로, 2017년까지 차량 23편성(46량)이 제작·공급되며, 완전자동무인운전 신호시스템과 검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여 약 11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친 후 2018년 11월부터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경영지원안전실은 공급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차례 국제입찰을 추진했으나, 현대로템 컨소시엄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국가계약법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현대로템 컨소시엄을 최종 공급자로 선정했다.

총사업비가 1조6553억원인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8분에 주행하는 국내최초의 지하경전철로 총연장 23.61km에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되며, 이번 공급자 선정으로 차종이 철제차량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5개 전공구를 일괄입찰(턴키)로 발주 예정이다.

# 건설공사 참여업체 평가로 건설시공견인

- 우수업체 표창 및 미흡업체 집중관리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경제적인 설계와 안전한 시공을 통해 효율적인 철도건설을 유도하고, 시공·감리·설계 업체의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4년 2월까지 '2013년도 참여업체 평가'를 시행한다.

품질안전평가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5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62건의 시공분야 등 총 111건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평점이 90점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여 이사장 표창과 함께 입찰 참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참여업체 중 중대한 안전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설계·시공 잘못으로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중점관리대상현장으로 지정하여 품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분류	개	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대상 선정기준
		토목·궤도	건축·전기	
시공평가	62건	토목·궤도 : 35건 건축 : 7건 전기 : 20건	-	공정율 90% 이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단, 전력 50억원, 신호통신 15억원 이상)
감리용역평가	11건	토목·궤도 : 10건 건축 : 1건	-	해당 용역의 공사 준공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설계용역평가	38건	토목·궤도 : 32건 건축 : 6건	-	해당 용역의 공사 준공 - 계약금액 1.5억원 이상

# 이용객 의견 직접 반영해 철도역사 건설

- 공단 블로그 활용해 이용자 의견 수렴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철도역사 건설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와 블로그(kr\_blog.blog.me)에 철도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본부는 그 동안 철도 역사 건설을 위해 운영기관인 코레일(철도공사)의 의견을 주로 반영했으나, 철도를 직접 이용하는 고객이 평소 느꼈던 불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객 의견은 역사 내 공간, 편의시설, 고객안내 설비, 교통약자 시설, 소방 및 안전시설, 화장실, 기타의견 등 7개 분야 37개항으로 분류하여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즉시반영' 사항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 후, 향후 건설되는 역사 설계에 반영된다.

김동업 건축설비처장은 "철도 운영자가 아닌 이용객 중심으로 철도역사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더욱 편리한 철도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영남본부, 공단·공사간 상호협조의 장 열어!

- 철도공사 대구본부 등과 실무협의회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6월 14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경주고속철도전기사무소 등 양기관 4개 소속과 함께 안전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철도 관련 제반사항의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양 기관의 본부장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처장과 부장이 참석해 14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또,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운행선 인접공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상호협력과 소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본부 이종하 기자>

# 2013년 '동반성장 메신저' 위촉식 개최!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6월 13일 회의실에서 임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메신저' 위촉식을 갖고 철도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정착 및 협력사간 동반성장 확산을 다짐했다.

동반성장 메신저는 2013년 동반성장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8명의 하도급사 직원을 메신저로 위촉하여 철도현장의 불공정계약행위 신고, 제도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사현장의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이 본부장은 위촉식에서 공단이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메신저 역할을 다해줄기를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수도권본부 서원원 기자>



# '재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시행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달 17일 협력회사 관계자 및 공단·공사 관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2분기 정기·특별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본부와 경영지원안전실이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교육은 감리·시공회사 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PM·공사관리관(직감독자 포함) 등 106명이 참석하여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사례 및 청렴교육과 협력사의 의견수렴을 위한 VOC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수해 우려 개소를 사전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정책의 상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현장관계자 및 직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이 본부장의 말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남본부 은일용 기자>



게시판

# 주요뉴스 ('13.6.15~'13.6.21)

-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 부채 年間 이자만 7조원 (조선일보06)
- 국토부 철도체제 개편안 '가속화' (중도일보08)
- 토론회 막아선 철도노조 (한국경제38)
- 국토부 4대 현안 밀어붙이기에 반발 커져 (경향신문18)
- 도로서 2분이면 승강장에... 침심도 철도, 5년후 상용화 (조선일보12)
- 공공사업 총틀었다하면 평균 4년 끌어... 합의 해결 1건뿐 (동아일보06)
- ① 정부 일방적 추진 → ② 주민 반발 → ③ 정치쟁점 되며 증폭 → ④ 외부단체 끼여 장기화 → ⑤ 소송 (동아일보06)
- 시장 다변화 주효... 해외건설 수주 '순풍' (세계일보18)
- 철도시설공단,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가동 (충청투데이09)
- 청와대 "공공기관장 인선 스톱" (동아일보04)
- 호남고속철도 부품 시험결과 부실 의혹 (서울경제29, 한국경제06, 세계일보06)
- 공공공사 입찰 '종합심사제'로 변경 (한국경제29)
- 국유재산 '공짜' 사용 줄인다 (한국경제5)
- 실적부진 건설사, CEO 교체 바람 (국민일보15)
- 정부 '중소 건설사 살리기' 나섰다 (한국경제31)
- 정부, 민간자본 활용해 SOC투자 확대를 (동아일보27)
- 철도공단 KR봉사단원, 재가장애인 거주공간 대청소 (충청투데이22, 중도일보23, 대전일보21)
- 목포~제주 고속철도 해저터널 재추진 (한국경제32)
- 철도 정부 지원 패턴 코레일 동의 받아야 (서울경제29)
- 용산구, 코레일 고발 '오염된 개발부지 淨化해야' (조선일보14)
- 건설업계 '정부 지원 절실' (파이낸셜19)
- "행복주택 반발 정공법으로 설득" (서울신문18)
- '정부 정보+민간 사업' 최상의 조합... 일자리 만드는 경제 선순환 (서울신문03)
- 정부-공기업 빛 915조... MB정부 5년간 2배로 (동아일보B02)
- "초등 4학년 손자가 받은 토지수용 재결서도 효력" (중도일보05)
- 서울~거제 내륙고속철도 '시동' (충청투데이16A)
- 남제자가 공강할 철도개혁이어야 (한국경제37)
- 철곡 구미철도CY 열차운행 내달 재개될 듯 (동아일보14C)
- 경기 경제단체들 'GTX 건설 빨리 추진을'... 정부에 촉구 (조선일보04)
- 경부선 국철 지하화 첫발... 26일 '용역 착수보고회' (경인일보20)
- 목포상의 목포~보성 철도 고속화사업 재개 촉구 (서울경제31)

경 조 사

■ 비서실 박장범 처장 장려  
- 일시 : 2013년 7월 6일 15시 30분  
- 장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회관 1층 대극장